광주·전남 私교육 대해부

❸ 중2 어느 여학생의 여름방학

하루 7시간30분 '학원 순례'

이 학원 저 학원 옮기며 5과목 들어

한달평균 108시간…학원비 70만원

"친구와 놀 생각 엄두도 못내요"

광주 D중 2학년인 영희(여·14·가명)는 여름방학이 방학 같지 않다. 학기 중에 비해 학원 수강 과목이 하나 추가돼 해야할 공부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영희는 학기 중 영어·수학·논술·과학 등 4과목을 수강했지만, 방학 중 '수학 복습과정'이 늘어 현재 5개 강좌를 학원에서 배우고 있다.

방학 중 영희의 '학원 순례'는 낮 12시 40분부터 시작된다.

매주 월·수·금요일이면 어머니의 차를 타고 광주시 남구 방림동 집에서 동구 지산동 수학 전문학원으로 이동한다. 학원에 도착하면 낮 12시 55분.

각각 2시간 30분씩 진행되는 강좌는 앞선 과정을 배우는 선행학습과 이미 배운 것을 다시 되짚어보는 복습과정. 학기 중에는 선행학습 강의만 있었으나 방학이 되면서 복습과정이 추가됐다. 학원비도 학기 중 15만원이었으나 방학을 앞두고 3만원이 오른데다 복습과정 10만원이 추가돼 28만원이 됐다.

5시간 동안의 강의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간다. 학기 중에는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강의가 진행돼 어머니가 학원이 끝날 시점에 맞춰 와 대기하다 집으로 데려갔지만, 요즘은 날이 훤할 때 끝나 비가 오지 않는 한 혼자 버스를 타고 귀가한다.

금요일의 경우 집 인근 논술학원에서 밤 9시부터 10시30분까지 논술을 배운다. 학원비는 10만원.

화·목·토에는 오후 6시 집 인근 영어 단과 전문학원에 가 8시30분까지 영어를 배운다. 학원비는 20만원. 학기 중에는 수학을 듣는 학원에서 격일로 번갈아가며 영어를 배웠으나 방학을 앞두고 학원을 옮겼다. 수강료가 5만원이나 더 비싸지만 '잘 가르친다'는 입소문을 들은 어머니가 적극 권유했다.

토·일요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집 인근 과학전문학원에서 공부를 한다. 학원비는 12만원.

영희가 방학 중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주당 27시간으로 한 달(4주)로 따지면 108시간에 달한다. 학기 중의 주당 19시간 30분, 한 달 78시간에 비해 38.5%(30시간)나 늘었다. 학원비도 월 52만원에서 70만원으로 34.6%(18만원) 증가했다.

영희는 학기 중에 비하면 방학을 맞아 다소 숨통이 트이지만, 여전히 학원에 얽매인 생활을 하다 보니 막상 방학인데도 친구들과 어울려 온종일 놀이공원이나 극장에서 마음껏 놀고 즐기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영희의 부모도 영희의 학원 일정을 고려해 올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희는 "방학이라고 놀면 애들에게 뒤처질까봐 계속 학원에 다닐 수밖에 없다"며 "친구들도 나랑 사정이 똑같다"고 말했다.

광주일보가 광주 4개교, 전남 3개교 등 7개교 중학생 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광주지역 도심 3개교에 재학 중인 329명의 45.9%인 151명이 단과 전문학원에 다니고 있고, 수강 과목(복수응답)은 모두 443개로 1인당 평균 2.93과목에 달했다. 영어와 수학이 각각 33.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과학 12.2%·국어 9.3%·논술 6.7%·사회 5.4% 등이었다.

단과 전문학원에 다니는 중학생 대부분이 방학 중 한두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중학생 절반 가량은 영희와 엇비슷한 실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영희의 학원 '24시'

학기중	방학중
■평일	■평일
17:40~17:55 승용차로 단과전문학원 이동	12:40 승용차로 단과전문학원 이동
18:00~20:30 수학 (월, 수, 금) 15만원 영어 (화, 목, 토) 15만원	13:00~18:00 수학 2강좌(월, 수, 금) 28만원 ※ 최근 학원비 3만원 인상 복습강좌 10만원 승용차 또는 버스로 귀가
20:45 승용차로 귀가	18:00~20:30 집인근 단과학원·영어(화, 목, 토) 20만원
21:00~22:30 집인근 논술학원·논술(금요일만) 10만원	21:00~22:30 집인근 논술학원·논술(금요일만) 10만원
~01:00 학원숙제	■토·일요일
■토·일요일	18:30~20:00 집인근학원 과학 12만원
18:30~20:00 집인근학원 과학 12만원	
한달 학원 수강시간 : 78시간 (1주 19시간30분 X4주) 한달 학원 수강료 : 52만원	한달 학원 수강시간 : 108시간 (1주 27시간 X4주) 한달 학원 수강료 : 70만원

영·호남 따로 없는 수해 복구 자원봉사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소장 김형남) 회원 143명이 25일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진주시 도곡면 마진리 일대를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수해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철구조물 철거·폐비닐 수거·청소 및 방역 등으로 하루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경남 진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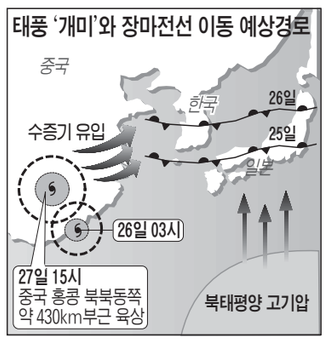
다시 장맛비…최고 80㎜ 비

28일부터 무더위

남부지방에 머물렀던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26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전남에 마지막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새벽부터 남부해안지방부터 비가 내리며 장마전선은 오후 늦게 전라북도까지 북상(北上)한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20~60㎜, 많은 곳은 80㎜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나 기습 집중 호우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관계자는 "제5호 태풍 '개미'(KAEMI)가 26일 새벽 3시쯤 대만 타이베이 쪽으로 접근하면서 장마전선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해 남부지방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을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밀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마전선은 27일 충청·경기지역까지 북상, 중부지방에 다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그러나 "보통 장마전선이 남하할 때보다 북상하는 경우에 비를 적게 뿌렸던 점으로 미뤄 이번 장맛비는 '물 폭탄'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맛비는 27일까지 계속되다 남부지방부터 서서히 그치면서, 28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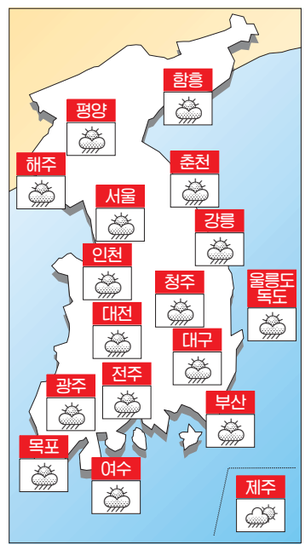
마지막 장맛비 였으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7월 26일 (음 7월 2일) ◇전국날씨

날씨

광 주	흐리고 비	21~27℃
목 포	흐리고 비	22~27℃
여 수	흐리고 비	21~26℃
완 도	흐리고 비	21~27℃
구 례	흐리고 비	20~28℃
해 남	흐리고 비	21~27℃
장 흥	흐리고 비	21~27℃
고 흥	흐리고 비	21~27℃
순 천	흐리고 비	20~28℃
영 광	흐리고 비	21~27℃
진 도	흐리고 비	21~27℃
전 주	흐리고 비	21~27℃
남 원	흐리고 비	19~27℃
정 읍	흐리고 비	20~27℃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목 포 밀물 03:13 14:58 썰물 08:28 20:20
여 수 밀물 07:42 22:15 썰물 03:47 15:45

▲해뜸 05:37 ▲해짐 19:41 ▲달뜸 06:13 ▲달짐 20: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8/1(화)
날 씨						
최저/최고	23/28	23/30	24/31	24/30	24/30	24/31

광주 성인 PC방 '요지경 2題'

조직폭력 개입…한달 1~3억 챙겨

광주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길주)는 25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인 인터넷 성인PC방을 개설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신양관광파' 행동대원 김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서방파' 행동대원 백모(3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제PJ파' 행동대원 양모(29)씨와 '신서방파' 행동대원 김모(3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등 광주시내 신흥도심지역에 성인 PC게임방을 차려놓고 업소당 30~40대의 PC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관매한 사이버머니 10%, 환전수수료 5%를 이익금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500만~1천만원, 한달 평균 1억~3억원의 수익을 챙겨온 혐의다.

한편 검찰은 최근 1개월 동안 10여개 업소를 단속, 컴퓨터 본체 등 300점과 현금 1억6천만원을 압수했으며 불법 범죄수익 18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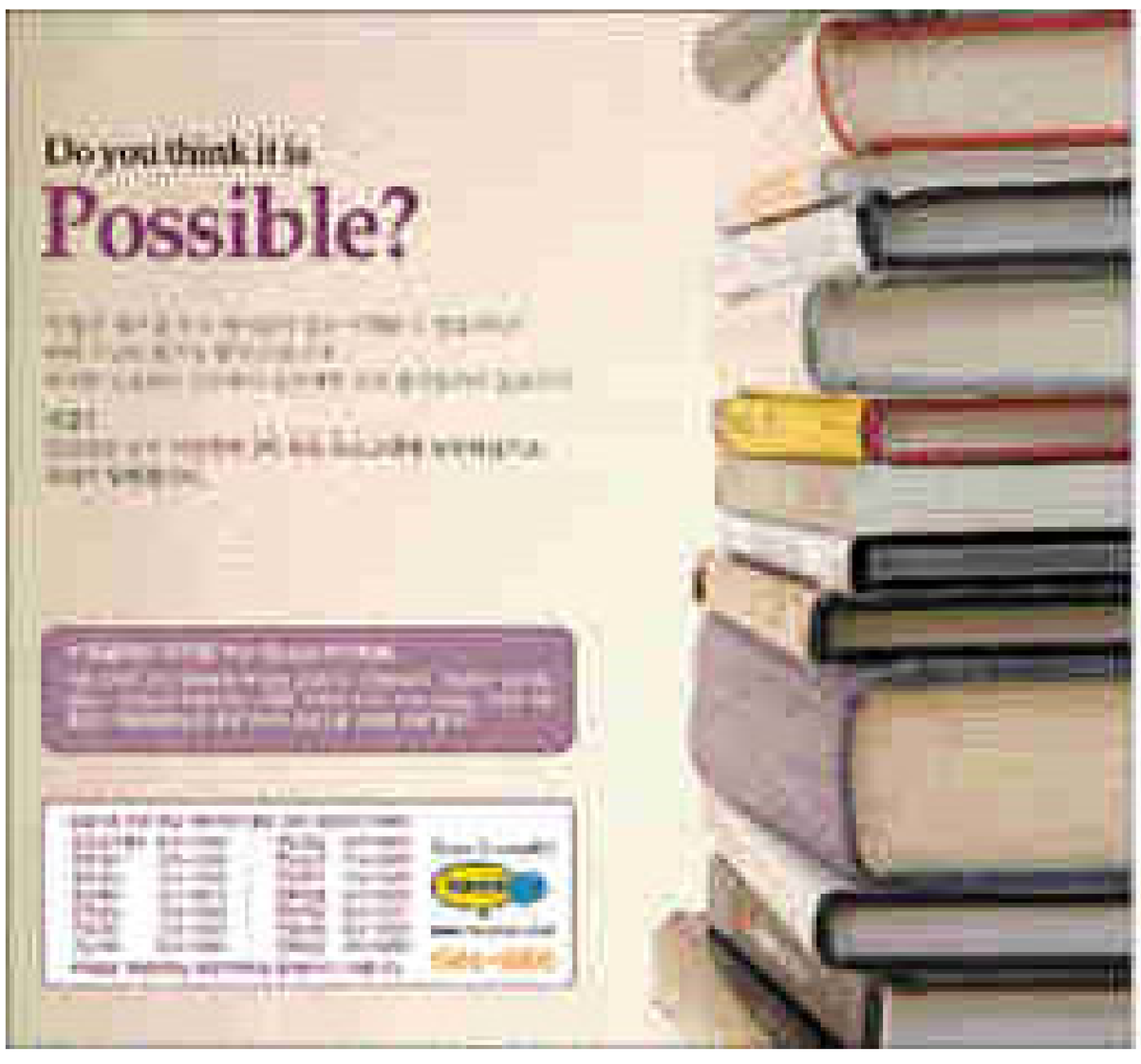
풀려난지 하룻만에 또 도박장 열어

전국의 성인 PC게임방에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검거된 일당 대부분이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 하루만에 또 다른 업체를 신설, 신규 가맹점 수십 곳을 모집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25일 전국 50여 곳에 불법도박프로그램을 제공, 3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우리두리' 업체 관계자 김모(31)씨 등 5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 14일 불법 성인 PC방 업체인 '우리두리'를 차려놓고 광주, 서울 등 전국 50여 곳에 신규 가맹점을 모집해 5억원의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앞서 12일 '뉴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뒤 광주·서울 등 전국에 100여 개의 가맹점을 모아 불법 도박을 벌인 이 업체 대표 장모(39)씨 등 5명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 등 3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었다.

김씨 등은 영장 기각 후 하루 만에 기존업체에서 사용하던 '뉴 파트너'라는 도박 프로그램을 '우리두리'로 이름만 변경, 신규 가맹점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